

진신(Jean Shin)작가의 일상 용품을 이용한 설치 미술전 **Jean Shin: Collections**

전시일: 2018 년 3 월 24 일-7 월 15 일

전시장소: 필라델피아미술관 페럴만빌딩 존스페인 갤러리

필라델피아미술관은 한국계 미국 여성 작가 진신(Jean Shin)의 개인전, *Jean Shin: Collections* 를 개최한다. 수명을 다한 일상 용품을 극적인 예술품으로 변신시키는 연금술사, 진신 작가의 이번 전시는 6 점의 대형 설치 작업과 1 점의 비디오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증받은 입던 옷이나 수집한 낡은 신발 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설치 미술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작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친숙함과 생경함, 수용과 배척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이번 전시의 중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Unraveling* (2006-2018) 은 미국의 아시안 아트 커뮤니티의 사회 관계망을 시각화 하고 있다. 2006 년 뉴욕에서 처음 시도된 이 작품은 뉴욕의 아시안 아트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기증받은 스웨터가 그 재료가 되었다. 이후 작품이 순회한 여러 도시들에서 수집한 스웨터가 더해져서 규모가 점점 커졌으며, 이번 설치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필라델피아의 아시안 아트 커뮤니티 멤버들이 기증한 스웨터들도 포함되었다. 본 전시의 큐레이터인 우현수의 스웨터는 2006 년 첫 뉴욕 전시를 계기로 기증되었다.

Armed (2005) 는 수집한 군복으로 만들어졌다. 브루클린 포트해밀턴의 하버디펜스박물관 (Harbor Defense Museum) 의 도움으로 진신 작가는 전,현직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등의 구성원을 직접 방문, 면담하고 유니폼을 기증받았다. 기증자들과의 친밀한 접촉은 작가에게 개인사와 집단적 기억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니폼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입는 이들에게 단체적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작가가 군복 기증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이었다. 자신 만의 독특한 오랜 시간과 품이 드는 작업 과정들을 통하여 작가는 기증받은 군복들을 해체하고 재 구성하여, 대형의 벽작업으로 재탄생시켰다.

Worn Soles (2001) 라는 작품에서 진신은 불특정다수가 소유했던 2 백 켤레가 넘는 낡은 신발을 재료로 삼았다. 신발에서 분리된 밑창들은 전시실 바닥에 한 방향으로 걸어가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처럼 설치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보이는 바쁜 움직임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밑창을 분리하고 남은 가죽들은 Hide (2004) 라는 작품이 되었다. 평평하게 펴진 신발 뒷 부분의 가죽은 원래의 짝과 뒤꿈치끼리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가 되고, 이들은 신발의 성별, 가죽의 색깔과 질감에 따라 무리지어져 다시 연결된다. 낡은 신발은 이전 주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이들의 확장은 사회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그룹들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 우현수는 “진신 작가는 입던 옷이나 신발 등을 매개로 한 설치 작업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 관계망을 탐구한다.” 라고 말한다. 또한 “원래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예술품으로 새롭게 탄생한 일상의 오브제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친근한 생활 용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게 한다.”라고 덧붙인다.

작가에 대하여

진신 작가는 1971 년 서울에서 태어나, 메릴랜드 근교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던 전형적인 이민 1 세대로서, 강도 높은 수작업을 통하여 평범한 재료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녀의 독특한 작업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진신은 스코히건 회화 조각 학교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에서 수학했고, 그에 앞서 프랫미술학교 (Pratt Institute) 에서 미술학사와 미술사 및 비평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진신은 원래 회화를 전공했는데, 당시에 공부한 인체 드로잉이나 해부학 등은 그녀의 인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근원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마르셀 뒤샹(1887-1968)의 레디메이드 미술을 원조로 하는 일상 용품을 이용한 설치 작업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20 세기 미술의 중요한 경향 중 하나로, 작가는 요코 오노 (Yoko Ono, born 1933), 에바 헤세 (Eva Hesse, 1936-1970), 루이스네벨슨 (Louise Nevelson, 1899-1988),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즈 (Félix Gonzalez-Torres, 1957-1996), 및 많은 아트 포베라 (Arte Povera) 사조의 작가들을 영감의 원천으로 거론한다.

진신의 작품은 많은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뉴욕현대미술관 (MoMA), 필라델피아의 패브릭워크샵뮤지엄 (Fabric Workshop and Museum), 워싱턴 DC 의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의 개인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브란데스대학교 (Brandeis University) 의 로즈 미술관 (Rose Art Museum) 과 스미소니언미국미술관이 진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작가의 웹사이트 www.jeanshin.com 참조.

전시 지원

이 전시는 코비재단 (Coby Foundation), 바바라와 티오도르 애런슨 부부 (Barbara B. and Theodore R. Aronson) 및 기타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Social Media @philamuseum



We are Philadelphia’s art museum. A world-renowned collection. A landmark building. A place that welcomes everyone. We bring the arts to life, inspiring visitors—through scholarly study and creative play—to discover the spirit of imagination that lies in everyone. We connect people with the arts in rich and varied ways, making the experience of the Museum surprising, lively, and always memorable. We are committed to inviting visitors to see the world—and themselves—anew through the beauty and expressive power of the ar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the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by phone at 215-684-7860, by fax at 215-235-0050, or by e-mail at pressroom@philamuseum.org. The Museum is located on the Benjamin Franklin Parkway at 26th Street. For general information, call 215-763-8100.